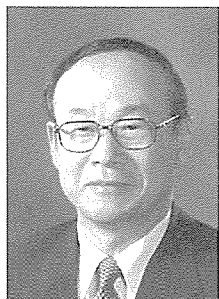




## 릴레이칼럼

단미사료 30년사 ⑦



**맹원재**  
현 대한민국 학술원 회원  
전 건국대학교 교수 및 총장

**우**리나라의 사료산업은 70년대 후반부터 80년대를 지나면서 물량 면에서나 기술 및 시설 면에서 눈부신 발전을 이룩하였다. 이 시기에 주역을 맡아 최일선에서 주야를 구분하지 않고 열심히 일하며 고생하시던 분들이 이제 하나하나 현장에서 모습을 감추고 있는 것이 가슴 아플 따름이다. 그들의 노고와 몸을 아끼지 않는 정열이 없었다면 오늘날 우리의 사료산업의 현주소는 다른 면모로 변해 있을 것이다. 그들의 이름을 한분 한분 거론하면서 같이 했던 회노애락을 나누고 싶은 마음 간절하지만 자칫 편견과 오해를 낳을까봐 두려운 마음에서 그만두어야겠다. 그러나 그들이 이룬 노력의 결실들은 절대로 묻혀 버려서는 안 될 것이다. 다행스러운 것은 그때 그 분들 중에 아직도 경영일선에서 예나 다름없이 똑같은 열성으로 일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 어쩌다 모임에서 만나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다. 나 역시 이제 정년을 하고 대외활동을 극도로 자제하고 있는 중이라 서로 만나 옛이야기를 주고받기도 쉽지 않은 처지가 되고 말았다.

우리나라 사료산업은 애초부터 매우 취약한 구조를 지니고 있었다. 그것은 기술이 부족하다든가 인재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사료원료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용 가능한 사료 원료는 한 톨이라도 허실이 없도록 알뜰히 사용하여야 함은 물론 국내 부존자원의 개발과 이용도 매우 중요하다.

70년대 후반쯤이었다. 현 단미사료협회 유동준 회장께서 연락을 하였다. 피혁분 때문이었다. 물론 일부 업자들이 제대로 가공처리 하지 않고 유통시킨 잘못된 인정 하지만 사료로서 충분한 이용가치가 있는 피혁분이 영원히 매장되어서는 안된다는 그분의 집념에 같이 동참하여 가는 곳마다 피혁분을 옹호하던 생각이 불현듯 떠오른다.

시설이 낙후되고 원료 확보가 어려웠던 20~30년전의 일인 만큼 어디 피혁분 뿐이었겠는가. 그때 유 회장께서 부존 사료자원을 개발해서 활용해야 된다고 외치며 동분서주하며 온 힘을 다하던 유 회장의 정열과 노력이 오늘날의 단미사료협회 발전의 밑거름과 원동력이 되었으리라 확신한다.

# 사료산업발전에 기여한 주역들을 생각하며

지금은 사료 곡물 수입이 다양화되어 여러 종류의 원료곡물이 수입되고 있고 수입처도 다변화되었지만 7·80년대만 해도 미국에서 수입되는 옥수수가 전부였다. 한때 캐나다산 보리가 가격 면에서 저렴하여 한국 사료협회에서 수입을 추진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사료용으로 보리가 수입된다는 사실에 국회에서까지 논란이 되어 수입계약을 취소한 적이 있었다. 이유인즉 우리나라에서는 오랜 세월 동안 식용으로 사용되던 보리를 가축에게 급여한다는 것은 정서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생산 농민들의 의욕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기 때문에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유럽 국가에서는 오랜 옛날부터 보리가 모든 가축들의 주사료이었고 그 당시 많은 나라에서 보리를 사료로 사용하고 있었다. 지금은 우리나라에서도 보리를 사료로 사용하는 것이 보편화 되어 있어 당시를 생각하면 재미있는 옛이야기가 아닐 수 없다. 그 후에도 보리를 사료로 사용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아 전국 주요 지역을 순회하며 보리의 사료적 가치를 홍보하기 위한 세미나 연사로 참여했던 기억도 새롭다.

비타민제, 아미노산제 그리고 미량 무기질이 어떻게 동물 약품에 속해야 하는가 하고 논란의 중심에서 소용돌이 치던 것도 실상은 우리 사료 산업의 발전을 위한 한때의 진통으로 믿는다.

지난 30년을 회고하면 기쁘고 쓰린 일들이 오죽 많으랴. 그러나 한 가지만 더 거론해야겠다.

1986년 1월 30일 한국 사료향미양행 주최로 설악산에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그때 찍은 사진들을 들여다 보며 오랫동안 못 보던 얼굴들을 떠올려본다. 아침에 눈을 뜨니 밤사이에 20~30cm 가량의 흰눈이 내려있었다. 눈 덮인 산과 나무들, 그 얼마나 아름다웠던지 그 후 겨울에 눈이 내리면 그 때 눈 덮인 장면들을 항상 떠올려 보곤 한다.

서울역 근처에 자리 잡고 있던 한국사료협회가 현 서초동에 자리를 마련하고 새 건물을 짓고 연구소까지 갖추고 이전할 때 우리 사료산업의 발전해 가는 모습을 보는 것 같아 학계 업계 구분 없이 너무나 감격스러워 했다. 그때 주역으로 일하며 각종 회의 또는 세미나를 주관하던 분들을 만나지 못하니 꽤 많은 세월이 흘러 버렸고 그들의 안부가 무척 궁금하다. 이에 못지않게 한국 단미사료협회가 새 사옥을 갖고 분석연구소를 운영할 뿐 아니라 사료종합전문지인 월간 '피드저널'을 발간하여 사료산업을 주도해 가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 가슴 벅차고 기쁘다. 오랜 세월동안 정들었던 많은 회사들이 회원사로 가입되어 있는 것도 마음을 끌게 한다. ㉞